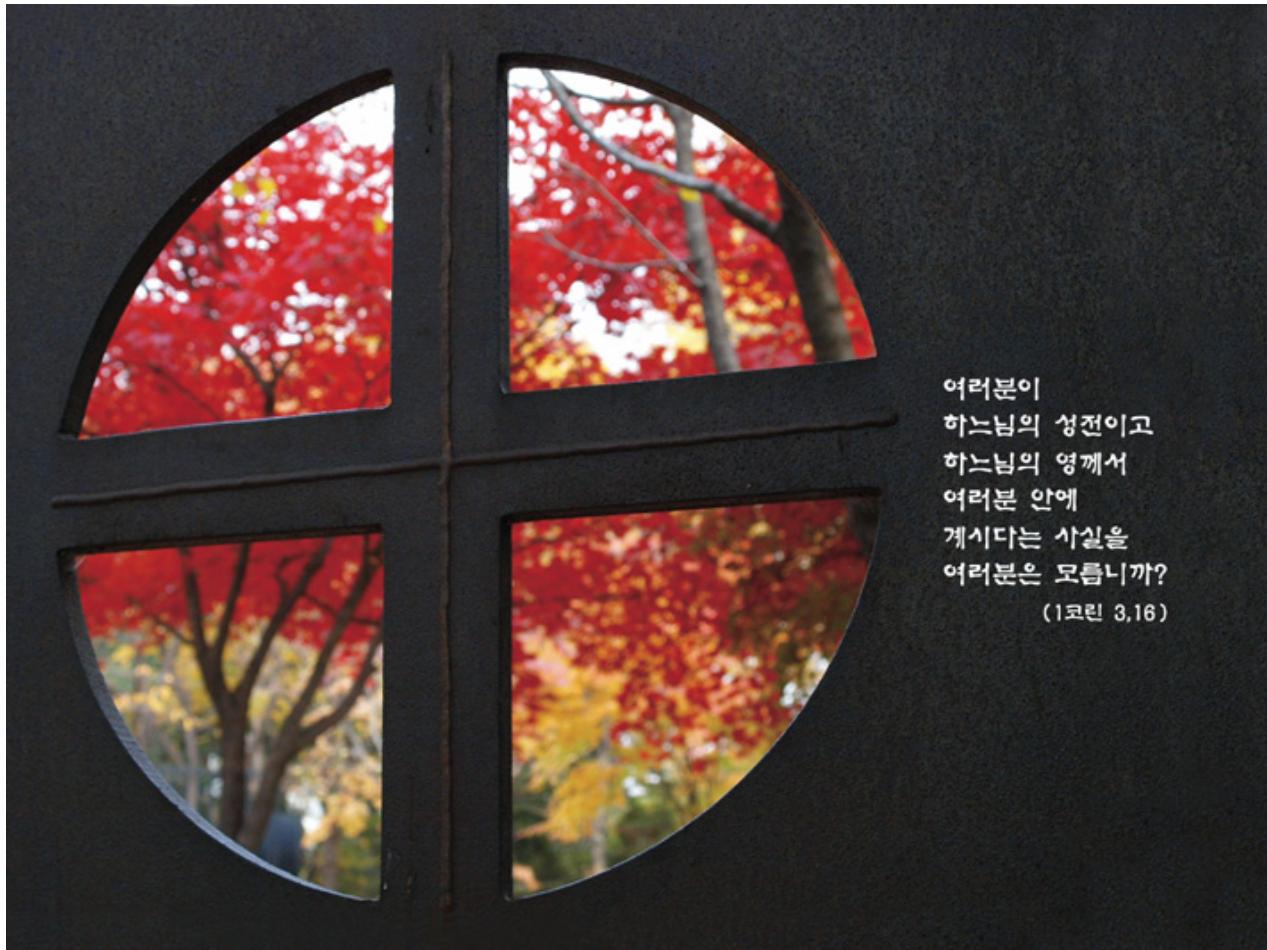


연중 제32주일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서울주보

2008년 11월 9일(가해)
- 제1654호 -

발행인: 정진석 | 편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 2-1 가톨릭회관 618호 | 가톨릭 인터넷 뉴스: www.catholic.or.kr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¹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1코린 3,16)

입당송 목시 21,2

제1독서 예제 47,1-2.8-9.12

화답송 시편 46(45),2-3.5-6.8-9(◎ 5)

- ◎ 강이 있어 그 줄기들이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도다.
- 하느님께서 우리의 피신처와 힘이 되시어, 어려울 때마다 늘 도우셨기에, 땅이 뒤흔들린다 해도, 산들이 바다 깊은 곳으로 빠져든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노라. ◎
 - 강이 있어 그 줄기들이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도다. 하느님께서 그 안에 계시니 흔들리지 않노라. 하느님께서 동틀 녁에 구해 주시도다. ◎
 -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야곱의 하느님께

서 우리의 산성이시로다. 와서 보아라, 주님의 업적을,
세상에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분의 업적을! ◎

제2독서 1코린 3,9-11.16-17

복음환호송 2역대 7,16

- ◎ 알렐루야.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집을 선택하여 성별하고, 이 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

복음 요한 2,13-22

영성체송 1베드 2,5 참조

너희는 살아 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데에 쓰이도록 하여라. 또 거룩한 사제단이 되어라.

사진 목상

십자가 모양의 조형물 틈사이로 보이는 곱게 물든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들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 그것은 십자가의 창으로 바라볼 때가 아니겠습니까. 가을이 깊어 가면 우리들 삶도 주님의 은총을 받으며 곱게 물들어 가겠지요. / 사진: 황인선 바르나바

우리의 내적 성전

박성칠 미카엘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사무처장



현 재 우리 서울대교구 성당의 숫자는 217개입니다. 지난 10년 남짓 교구에서 새로 봉헌된 성당의 숫자는 100여 개에 달합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성당이 늘어났지만 마음은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성당이 늘어나는 그 숫자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당이나 교회 건물이라는 외적 성전은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공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외적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 성전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영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외친 바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이 나의 어좌요 땅이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에게 지어 바칠 수 있는 집이 어디 있느냐? 나의 안식처가 어디 있느냐?”(이사 66,17).

예수님께서도 눈에 보이는 외적 성전에 그렇게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감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루카 21, 6).

오늘 복음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안에 다시 세우겠다”(요한 2,19).

사람이 지어 만든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전인 주님의 몸 앞에서는 더 이상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과 만나는 진정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으로 통하는 문이며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

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요한 14,6).

바오로 사도는 우리를 역시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느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1 코린 6,19).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2 코린 6,16).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고,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욕심과 불신앙으로 똘똘 뭉쳐진 나를 허물어야(大死一番 대사일번), 새로운 성전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습니다(絕後再蘇 절후재소).

그것이 우리의 부활신앙이요, 우리의 성전신앙입니다. 거짓 성전을 허물어버리는 것이십자가 신앙이고,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참 신앙의 내적 성전을 쌓아올리는 일이 부활신앙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라떼라노 성전 봉헌 축일을 함께 축하합니다.

간장종지

갈매기 높이 날아 무었하고
들개, 사자의 가슴지녀
어디 쓰랴마는



가끔씩 그런 놈 있다.
살다보면...

말씀의 이삭

참으로 선한 사람

오정희 실비아 | 소설가



좁은 집에서 여러 식구들이 복닥이며 살던 어린 시절, 마루나 방의 벽에는 아이들 각자의 키높이대로 여러 개의 줄이 그어져 있었다. 한두 달에 한번 정도 어머니는 아이들을 벽에 세워놓고는 머리꼭지 높이에 가로로 짧은 금을 그은 후 연월일을 적으셨는데 키를 쟀 때마다 매번 우리들의 성장을 놀라시고 대견해하셨다. 아이들을 기르면서 나또한 어머니처럼 벽에 아이들의 키높이를 재어 기록하였다. 쟀 때마다 손가락 한두마디부터 무려 반뼘이나 자라 있기도 하여 아이들과 나는 놀람의 탄성을 지르곤 하였다. 이사를 하여 낯선 집의 벽에 그어진 제각각 높이의 금을 볼 때면 그 집에 살았던 아이들에 대해, 그들의 성장의 시간들에 대해 사랑스러움과 정다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새로 도배를 하기 위해 뚝은 벽지를 뜯어내거나 새 벽지를 덧발라 그들이 살았던 흔적을 없앨 때면 마음이 찬하고 미안해졌다.

아이들의 자라남은 꽃이 피어나는 순간처럼 그렇게 경이롭고 비밀스럽고 고독하다. 무구하게 잠든 아이들, 자면서 크는 아이들을 보면서 종종 나는 자문하곤 하였다. ‘나는 이 아이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생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어쩌면 자신의, 어지럽게 갈팡지팡 흐트러뜨린 지난날의 발자국을 돌아보는 회한이기도 할 것이다. 사랑이 깊을수록 소망은 본질적이고 단순해지기 마련인

지 마음에는 끝내 ‘참으로 선한 사람이 되라’는 기도만이 간직된다. ‘선한 사람’ 이란 호칭은 언제나 온유하게, 깊은 내면적인 울림으로 와닿는다.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세속적 성취와 성공을 이룬 사람, 부와 명예와 가시적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이 세상과 우리 안에 깃든 선한 뜻과 사랑을 믿는 ‘선한 사람’ 들로 인해 세상은 조금씩 평화로워지고 따뜻해지는 것일 게다.

선한 사람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자신들이 사랑받는 귀한 존재라는 확신과 더불어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가치와 미덕을 실현시키는 힘이기도 할 것인즉,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함께 하려는 마음없이는 진정한 신앙도, 미학도, 윤리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바로 사랑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보잘것 없는 이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일 게다. 이 고통많은 세상에서, 자신들이 하는 일이란 넓은 바다의 물한방울에 지나지 않지만 그 작은 일을 함으로써 이 세상의 고통이 그 한 방울만큼은 줄어들지 않겠는가, 라던 마더 데레사의 말씀은 ‘참으로 선한 사람’으로서 하느님께 봉헌하는 희생과 믿음의 극대치를 보여준다.

모든 창조물과의 평화 34

환경 애니 메이션 '월-E'

지난 여름 환경영화가 한편 개봉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월-E'입니다. 2810년 지구, 땅에는 각종 폐기물, 하늘에는 폐 인공위성이 날고 있고 지구에는 로봇 '월-E(지구 폐기물 수거·처리용 로봇)'와 바퀴벌레 한 마리만 살아갑니다. 지구가 자정능력을 가진 초록별이 아닌 죽음의 별이 되자, 인류는 오화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서 살아갑니다. 700년이 넘게 우주선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구 탐사로

봇 '이브'를 보내 지구에 돌아올 결정적 단서인 '식물'을 찾습니다. 영화는 땅과 식물 그리고 사람과 로봇이 함께 사는 지구별의 새로운 희망으로 마무리 됩니다. 본래 자연에는 쓰레기가 없었지만 인간 중심의 가치관이 쓰레기와 폐기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가까운 미래, 인류 멸망이 아닌 생존을 위해서는 다른 피조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지구 중심의 가치관'이 꼭 필요합니다.

‘선플 달기’ 이웃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표현

인터넷상의 악플(악성 댓글)이 주는 폐해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연예인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인터넷상의 악플에 시달리다가 자살에 이른 사건들이 자주 보도되어 왔고 최근 텔런트 최진실씨의 충격적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악플이 주는 폐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상대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선플(착한 댓글)달기 운동을 확산시키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악플은 건전한 비판과 의견제시와는 전혀 다르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근거 없는 시기와 질투, 자기파시욕으로 무책임하게 상대방을 비난하며 자신의 폭력성을 원색적으로 드러내는 미성숙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이다. 악플을 다는 사람은 현실세계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일탈에 대한 욕망을 재미삼아 펼치는지 모르지만, 그 글은 상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뿐 아니라 멀쩡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귀한 생명까지도 잃게 만들 수 있다.

우리사회는 언제부터 예의를 존중하는 동방의 나라에서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자기절제 없이 이기심과 폭력이 난무한 사회가 되었을까? 치열한 경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릴 적부터 남과 경쟁하며 남을 짓밟아야 내가 살수 있다는 문화 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남을 깎아 내리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일까?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자신의 체면을 중시하고 잘 보이려고 하면서도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속물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는 우리 사회의 그늘진 면을 보여주는 현상일까?

악플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선플 달기 운동은 서로 격려하고 사랑의 마음을 나누며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려는 가치관 회복을 위한 우리 사회의 자정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따뜻한 칭찬의 말은 상대방의 삶에 기쁨을 주며 그 사람의 가능성을 키워서 더 큰 성장으로 이끌어 주기도 한다. 또한 비판의 댓글을 다는 경우에도 원색적인 비난의 표현 대신 상대방의 선의를 먼저 읽어주고 그 비판의 근거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의를 갖추고 제시할 수 있을 때 선플이라고 부를 수



2007년 5월23일, 선플달기운동본부 발대식

있을 것이다.

인터넷은 이제 대중매체로서 우리 사회 전체의 선과 전인적 완성을 위한 문화의 핵심 도구라고 할 수 있기에 윤리적 의무가 따른다. 교황청 사회홍보평의회는 2002년 발표한 <교회와 인터넷>이라는 문헌에서 “건전한 윤리기준에 따라 분별력 있는 판단을 내리는 법” 등 인터넷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인터넷의 부정적인 측면인 무책임한 비난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어느 정도 분노의 목소리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국가당국의 개입으로 적절한 표현의 한계를 세우고 규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8항).

오늘날 인터넷을 비롯한 대중매체는 올바로 사용될 때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참되고 올바른 전달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는 의견들의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강력한 연대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불의와 불균형”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따라서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식별력과 선정 능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적인 의무이며 이를 위해 “부모와 가정, 교회는 포기 할 수 없는 엄격한 책임이 있다”(간추린 사회교리 561-562항).

사도 바오로의 다음 말씀은 대중매체에 종사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할 권고이다. “그러므로 거짓을 벗어 버리고 저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에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이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에페 4,25,29).

박정우 후고신부 |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서울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소식

11월16일(일)은 ‘평신도 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호국 영령을 위한 위령미사 안내

11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군종교구에서는 특별히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을 위한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 집전: 군종교구장 이기현 주교 외 군종사제단
- 대상: 수도권지역 군종신부, 유가족, 군 및 일반 교우
- 때: 11월14일(금) 오후 2시~3시30분
- 곳: 국립현충원 내 현충관 / 문의: 749-1921

전교수녀연수

서울대교구 사목국 일반교육부는 각 본당의 전교 수녀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합니다.

- 주제: 중독가정 2 / 회비 없음(11월18일까지 접수)
- 때, 곳: 11월25일(화) 오후 2시~5시, 사목센터 2층 대 교육관 / 문의: 727-2062, 3 사목국 일반교육부

‘멋진 인생 후반기를 위한 준비교육’ 교육생 모집

- 대상: 55세 이상의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가능
- 교육기간: 월·수반, 화·목반 - 주2회(총 20시간)
- 회비: 일반 2만 원, 차상위계층 1만 원(12만 원 정부지원)
- 장소: 교구 시니어센터(종로성당 내), 서울여성플라자
- 문의: 727-2388 노인사목부 (사)서울시니어아카데미, 815-1922 (사)한국씨니어연합 / 접수: 2009년 1월21일까지

무의탁 어르신 사랑의 보금자리 마련

카리타스 합창단 제9회 정기연주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무의탁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쉼터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금마련을 위해 연주회를 갖습니다.

- 때, 곳: 11월17일(월) 오후 7시30분~9시, 명동성당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900-914598 서울가톨릭사회 복지회 / 문의: 727-2254, 776-8810 자원개발부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거룩한 열정의 딸수도회	11. 16. 14시~17시	사당동 본원	010-2704-6186
나자렛 예수 수녀회	11. 16. 14시	경남 창녕 본원	016-500-4903
마리스타 교육 수사회	11. 16.	안산 수련소	010-2882-6227
마리아 수도회	11. 16. 14시	문의 바람	010-2406-8547
마리아의 딸수도회(마리아니스트)	11. 16. 14시~16시	목동 본원	011-686-7134
삼성산 성령 수녀회	11. 16. 14시~17시	신림동 본원	874-6347
성 골룸반 외방 선교 수녀회	11. 16. 14시~17시	돈암동 본원	010-7101-9302
성빈센시오 아비오로 시령의딸회	11. 16. 14시	군포 수녀원(군포성당 옆)	010-6625-0927
성심의 프란치스코 수녀회	11. 16. 14시	장위동 수녀원	010-2000-4131
순교자의 모후 전교 수녀회	11. 16. 14시	인천 강화 갑곶순교성지수녀원	032)766-1685
예수마리아성심 전교 수녀회	11. 16. 14시	수녀회 본원	010-3227-9446
예수성심 시녀회	11. 16. 14시	태릉성당 수녀원	010-2820-1011
율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11. 15-16.	부산 광안리 은혜의 집	018-564-1135
위로의 성모 수녀회	11. 16. 14시	성북동 본원	010-4805-4224
한국 성모의 자애 수녀회	11. 16. 14시	계산 서원(대구)	054)434-8660
한국 순교 복자 빛마 수녀회	11. 16. 14시	성북동 본원	011-9113-4997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문헌 CD 발행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는 전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발표한 많은 문헌들 중에 우리말로 번역된 것들을 추려 75개의 문서를 원문 대역 CD로 발행했습니다(가격: 1만5천 원). / 구입문의: 460-7582

이번 주간 기억할 사제와 묘소

- 11월14일 조인환 베드로 신부(73세) 1987년, 용인
- 11월16일 박병윤 토마스 신부(75세) 2002년, 용인

다큐멘터리 영화 ‘용서, 그 먼길 끝에 당신이 있습니까?’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가 후원하는 영화 ‘용서, 그 먼길 끝에 당신이 있습니까?’가 11월6일(목)부터 2주동안 강변 CGV에서 상영합니다(수익금은 범죄 피해자 지원기금으로 기부되며, 주보 지참시 입장료 할인함). / 문의: 921-5093

천주교 농부학교 전문과정

- 대상: 천주교 농부학교 졸업생 및 관심자(가족동반 가능)
- 때, 곳: 11월15일(토)~16일(일), 경남 합천 가회면 중촌리 나무실마을 / 회비: 1인당 4만 원
- 내용: 귀농 생태마을 둘러보기, 가을걷이, 황토벽돌 만들기 외 / 문의: 727-2283 환경사목위원회

사회복지운영기금마련 사랑의 작은바자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여성전문 의류제조사와 함께하는 ‘사랑의 작은 바자회’를 갖습니다. 본 행사의 수익금은 전액 본 볍인에 기부되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과 운영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때: 11월16일(일) 오전 11시30분~오후 7시
- 곳: 명동성당 별관 / 품목: 여성 전문의류 및 남성의류
- 문의: 727-2254(www.caritasseoul.or.kr/bokji) 자원개발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직원 채용 공고

서울대교구 양천성당 여사무원 모집

- 대상: 25세 이하 PC 및 회계업무 가능한 세례받은 여교우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주임신부 추천서
- 접수: 11월23일(일)까지 / 제출 서류 반환 안 됨
- 주소: 서울 양천구 신정7동 323-29 / 문의: 2647-6413, 4

가톨릭화랑: 수원가톨릭미술가회 제11회 정기전

가톨릭화랑은 ‘수원가톨릭미술가회 제11회 정기전’을 11월14일(금)~27일(목)에 전시합니다. / 문의: 360-9193

평화화랑: 김경옥 판화전

평화화랑은 ‘김경옥 판화전’을 11월12일(수)~18일(화)에 전시합니다. / 문의: 727-2336

알림

교구청 기관과 단체

낙태차유 프로그램 및 월례미사 희망으로 가는 길

-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 때, 곳: 11월11일(화) 13시30분~16시30분, 서울 대교구 사목센터 6층 소성당(www.ihome.or.kr)
- 문의: 727-2071 사목국 가정사목부(회비 없음)

교구 산하 기관과 사도직 단체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월례미사·성체조배

- 기도교육, 미사(방정영 신부), 성체조배 / 773-3030
- 때, 곳: 11월13일(목) 14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2009학년도 전기 가톨릭대 교육대학원 신입생 모집**
- 13개 전공(인원: 142명) / 문의: 2104-4176, 3
- 원서 교부 및 접수: 11월12일(수)~19일(수)
- 자세한 사항은 <http://ged.catholic.ac.kr> 참조
- 수험생을 위한 [주]의 선물 세 가지 수능 이벤트**
- 때, 곳: 11월13일(목)~16일(일), 청소년 문화공간 '주' 명동(대상: 2009학년도 수험생) / 727-2344(www.ju.or.kr)
- 무료 음료 제공과 진로 적성 검사, 선물 증정, 공연

노인대학 봉사자 특별 교육

- 대상: 노인대학연합회 소속 단위 노인대학 학장 및 봉사자 / 727-2386 노인대학연합회
- 때, 곳: 11월11일(화) 9시30분~16시, 우리은행 본점 4층 대강당(회비: 1인 1만원/중식 포함)

전·진·상 영성사목센터(문의: 726-0700)

- [성경유니티 참가문화내 모습을 찾으시면: 11월20일(수) 9시30분~16시30분
치유의 성경 말씀과 함께하는 내적 쇄신 과정]
김마영성 1·2단계: 12월2일(화) 9시~4일(목) 16시(2박3일)
영혼을 깨우는 궁들이기와 꿈의 실현]

청기기도회 치유세미나

- 때, 곳: 매주(금) 22시, 동성고 강당(전철 4호선 해화역 1번 출구) / 867-7900 성령쇄신봉사회(고해성사, 치유상담, 성시간, 미사, 강의, 그룹대화, 기도회)

[11월14일(금) 서정현 신부 | 11월21일(금) 임언기 신부]

영혼과 육체의 치유세미나(7주간)

- 강의, 치유기도, 미사 / 문의: 867-7900
- 때, 곳: 매주(수) 12시30분~16시30분, 성령쇄신봉사회관(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5528 · 5535 · 6512번 버스 홍승 후 신림8동 사무소 하차)

1주	영혼과 육체의 치유	2주	건강한 영혼 유지하기
3주	마음의 상처와 치유	4주	삶의 고통과 치유
5주	우울증에서의 치유	6주	육체적 질병의 치유
7주	어둠의 해결과 치유		

지구와 본당

가명 어린이집 원장 및 가명 유치원 원장 모집

-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시설장으로서 자격 요건을 갖춘 분 / 유치원 원장: 유아, 아동심리교육 전공자, 유치원 교사 자격증, 유치원 원장으로서 자격 요건을 갖춘 분
- 서류: 이력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 본당신부 추천서 / 392-5018 중림동 약현성당
- 11월23일까지 접수(접수한 서류는 반환 안 됨)

목주기도 200단(성모송 2000번) 기도모임

- 세상 떠난 영혼을 위하여, 수험생들을 위하여
- 때, 곳: 11월11일(화) 10시~16시30분, 망우동 성당(주최) / 문의: 2209-6185(중식 제공)

7지구 노원성당 훈민 강화

- 때, 곳: 11월16일(일) 오후3시~6시, 노원성당 나눔자리(전철 7호선 미들역 5번 출구)
- 회비: 2인 2만원(교재·간식) / 문의: 933-9981

13-A지구 성령기도회

- 내용: 미사와 말씀 치유 / 문의: 010-6230-4250
- 때, 곳: 매주(화) 20시~23시30분, 봉천동성당

[11월11일(화) 한성호 신부 | 11월25일(화) 한상우 신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등록단체

성가정 입양원 후원회 미사

- 때: 11월16일(일) 오전11시
- 곳: 성가정 입양원 성당 / 문의: 764-4741~3

행복을 만드는 집(치료 공동체)

- 여성 알코올, 약물 의존자의 상담, 교육, 주거
- 문의: 485-8744, 016-458-9310 행복을 만드는 집

가톨릭 여성의 전화(전화상담, 면접상담 가능)

- 가족갈등, 부부(폭력 등), 개인문제 등
- 매주(월~금) 10시~18시 / 상담: 745-1366
- 면접 예약 및 사무: 3675-1338

지적장애인 공동생활기정 사회재활교사 및 일주자 모집

- 대상: 지적장애 2급 이하, 취업활동 가능한 분
- 모집: 강서 히지도 공동생활기정 / 2658-6521, 010-2667-6521 정기타리나수녀(동촌7종합사회복지관)

탈리다움센터 생활쉼터 문화 강좌

- 일상의 삶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통해 궁정적인 인간관계와 문제해결을 위한 강좌임
- 때: 매주(수) 10시~11시 / 742-9471, 3 탈리다움센터

'상처받은 나 치유' 프로그램

- 마음 속 상처를 치유하여 소중한 '나'를 발견함
- 때: 11월20일부터 매주(목) · 11월21일부터 매주(금) 오전10시(8주) / 775-4831, 2 평화심리상담소

나눔의 북상회 93기 피정

- 대상: 본당의 사회사업부과 및 일반교우, 수도자
- 때, 곳: 11월21일(금)~23일(일), 장지 피정의 집(동암동) / 727-2547, 018-227-1856 나눔의 북상회

메종 프로그래스(발달상담/임상 및 건강심리센터)

- 전철 2호선 강남역 3번 출구 / 011-219-2059

상담 및 심리치료	학습동기가 낮고 목표의식이 부족하여 계획을 세우거나 실천을 잘하지 못하는 학생 및 성인, 비행적인 부모님 태도 때문에 부모·자녀 갈등이 심한 가족, 우울하고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대인관계가 어려운 이동·청소년 및 성인
전문적인 종합심리 평가	지능, 주의집중, 학습 능력, 기억, 성격, 정서(우울, 불안 등)

수도회

위로의 젊은이 기도모임

- 때, 곳: 11월11일(화) 20시, 위로의 성모 수녀회(주최) 성북동 본원 / 765-3660, 010-4805-4224

젊은이 성체조배(성모 영보 수녀회)

- 때, 곳: 매주(목) 20시~22시, 곤현 본원 성당
- 문의: 011-9920-9423(www.smyongbo.or.kr)

예수 성심 전교 수녀회 젊은이 피정

- 주제: 찰해복을 찾아 / 문의: 010-9330-3104
- 때, 곳: 11월21일(금) 16시~23일(일), 부산 본원

예수 수도회 성소자 피정

- 대상: 젊은 미혼 여성(주관: 예수 수도회 성소실)
- 때, 곳: 11월22일(토) 16시~23일(일) 16시, 예수 수도회(오류동) / 문의: 010-9910-1198

젊은이 LD(거울한 독서) 모임

- 때, 곳: 매주(일) 오후2시, 대구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주최) 서울 분원 / 010-4529-3429

향기 모임

- 대상: 고요 속에 기도하고픈 미혼 여성
- 때, 곳: 11월5일(수) 19시30분~21시30분, 씨튼 피정의 집 / 011-9193-3005 사랑의 씨튼 수녀회

신악성경 통독 피정

- 때, 곳: 11월21일(금) 14시~23일(일) 13시,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주최) 본원 / 회비: 8만원
- 문의: 055-351-2285-6, 011-758-3572

예수 성심 시녀회 성소 피정 '나는 행복합니다'

- 대상: 성소에 관심 있는 미혼 여성(회비: 1만5천원)
- 때, 곳: 11월22일(토) 17시~23일(일) 15시, 소보동지 피정의 집 / 문의: 010-2820-1011

살레시오 수도원 청년 모임(문의: 019-329-1787)

- 대상: 청년 남녀 누구나(지도: 조성태 신부)
- 곳: 살레시오 수도원(대림동) / 영어 모임: 매주(수) 19시30분 · 기도모임: 매주(토) 15시30분

성심 수녀회 대림 피정(문의: 010-9562-3339)

- 대상: 기도하고 싶은 젊은 미혼 여성(회비: 2만원)
- 때, 곳: 11월22일(토) 16시~23일(일) 17시, 예수마음배움터(파주) · 미사 있음(<http://songsim.org>)

살레시오 성소후원회 월례 영성 강좌와 미사, 안수

- 주제: 죽음의 영성(지도: 김보록 신부)
- 때, 곳: 11월10일(월) 10시~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848-9932, 011-711-9928
- 죽음 체험 하루 피정: 11월16일(일) 9시30분~16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강당(죽음에 관한 강의와 묵상, 유언서 작성, 관에 들어감, 선종 기도, 당신을 위한 장례미사·주일미사와 고별식)

쌤풀 나우리 상담센터(문의: 2248-4583, 4)

-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서울 관구에서 운영
- 심리검사,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및 사회적응 집단치료 등(대상: 정서 및 행동상의 문제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유아, 이동, 청소년, 성인)

고등학교 3학년 물건너기 피정

- 주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 야훼 이르에!
- 때, 곳: 12월6일(토) 16시~7일(일) 16시, 상지 피정의 집(주최) / 문의: 923-3547, 928-5175
- 선착순 50명(세면·필기도구, 운동화 준비)

실천 교육 참가자 Kett 초청 연수

- 대상: 사제, 수도자, 유치원, 초·중등 교육기관, 본당의 신앙 교육 담당자, 수도회의 성소 담당자, 피정 지도자(12월15일까지 접수)
- 때, 곳: 1차 1월7일~9일 · 2차 1월12일~14일(숙박 교육), 음성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충북 음성)
- 문의: 763-2274, 017-714-2274 노틀담 실천교리교육 연구소(홈페이지): www.ndrpp.or.kr

타교구와 기타 단체

신리성지 순교자와 함께하는 미사

- 때, 곳: 11월13일(목) 10시30분~12시,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특강 · 미사: 김성태 신부) / 3789-1359, 041)363-1359

마리아운동 다향방 모임

- 때, 곳: 11월13일(목) 14시~16시, 전진상 교육관
- 문의: 019-9373-2004 마리아운동 다향방 모임

삼성산 2박3일 무료 피정

- 때, 곳: 11월14일(금) 18시30분~16일(일) 15시, 삼성산 피정의 집(주최) 대강당 / 874-6346, 011-277-0317

성모 공동체 회원 모집

- 대상: 공동체 삶을 원하는 분, 20~40 대의 독신 남녀로 상주 가능한 분
- 문의: 031)771-6260 양평 옥천 피정의 집

폐제 노래와 함께하는 청소년 · 청년 기도모임

- 때, 곳: 11월15일(토) 18시45분, 작은 형제회 수도원 성당(정동) / 744-0840 청소년의 햇살 폐제 수사들과 함께(www.taizelove.or.kr)

한국가톨릭여성연구원 열린 강좌

- 주제: 우주의 신비와 인간 생명 / 2164-4804
- 때, 곳: 11월15일(토) 오후2시30분~5시, 정동 품사랑 / 강사: 이정규 박사(천문학)

북상 관상 기도 피정

- 미사: 신원식 신부 / 016-332-8789 가르멜 동정녀회
- 때, 곳: 11월16일(일) 14시~17시, 가톨릭출판사 신관 8층(전철 2 · 5호선 충정로역 5번 출구 직진 2분)

작은 예수회 성극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 때, 곳: 11월16일(일) 15시, 작은 예수회관(동동, 전철 5 · 7호선 군자역 6번 출구 100미터 전방, 혼혈 지하)
- 회비: 일반 5천원, 학생 3천원 / 455-8836, 017-231-1999

성음악아카데미 제10회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

- 연주자: 김미연, 김수열, 박리나, 황지혜
- 때, 곳: 11월17일(월) 오후7시30분,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죄양업홀 / 393-2213~5

Schola Gregoriana de Seoul 단원 모집

- 대상: 그레고리오 성가에 관심 있는 전공자 및 45세 미만의 여성 / 010-6251-9821 이정범
- 오디션: 매주(목) 19시, 가톨릭 대교회음악대학원 연습실(중림동) - 자유곡 1곡(지휘: 최영현 신부)

성심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주제: 미래를 여는 성심 - 한국 성심 교육 100년을 생각함(대상: 가톨릭 교육 관계자)
- 때, 곳: 11월15일(토) 14시, 성심여고 본관 3층 바라홀(원효로4가) / 702-5502~4 성심여고 교무실

2009학년도 (안동)가톨릭 상지대학 신입생 모집

-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 수시 2학기 2차: 11월20일(목)까지 접수
- 모집과 안내는 www.csj.ac.kr 참조
- 문의: 054)851-3021~2, 3009(팩스) 대외협력처

작은예수사랑을 암원 기악 강습

- 곳: 작은예수회관(동동, 전철 5 · 7호선 군자역 6번 출구) / 문의: 018-330-3283

기타: 3개월 18만원	드럼	키보드/화성학
일렉, 베이스: 24만원	3개월 18만원	조금(3개월) 18만원
월 · 주 · 목(주 1회) 월 · 수 · 목(주 1회)	월 · 수 · 목(주 1회)	중급(3개월) 18만원
수요 친구: 매주(수) 오후2시~5시	월 · 수 · 목(주 1회)	월 · 수 · 목(주 1회)

평화방송·평화신문은 매주 화요일에 은인과 후원자들을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평화방송 텔레비전

PBC 창립 20주년 특별기획 드라마

- 탁덕 최양업 -

한국 천주교회의 큰 사제, 최양업 신부(1821-1861)의 삶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평화방송 TV는 특별기획 3부작 드라마 '탁덕 최양업'을 오는 11월24일(월)부터 연속으로 방송합니다. 땀과 눈물, 사랑과 행복이 함께했던 최양업 신부의 뜨거웠던 사목 열정과,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민초들의 모습을 통해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 출연: 원기준, 박순천, 심양홍 등
- 방송일시: 1부 24일(27일)·2부 25일(28일)·3부 26일(29일) 오전 11시·오후 3시·오후11시 / 30일(일) 오후 2시 1~3부 연속방송

평화방송·평화신문 2009 신춘문예 작품 공모

평화방송·평화신문은 서울대교구 청소년국과 함께 '2009 평화신문 신춘문예' 후보작을 공모합니다.

- ▶ 시: 상금 200만원(3편 이상)
- ▶ 소설: 상금 400만원(200자 원고지 80장 안팎)
- ▶ 창작동극: 상금 300만원(10~30분 분량) - 신앙을 주제로 주일학교 성극 무대에 올릴 수 있는 내용의 창작극
- ▶ 유아동화: 상금 300만원(200자 원고지 20~30장)
- 보낼 곳: (100-031) 서울시 중구 저동 1가 2의 3(삼일로 145) (재)평화방송 신문국 신춘문예 담당자 앞
- 당선작 발표: 2009년 1월 25일자 평화신문, 평화방송 TV·라디오, 「가톨릭 디다케」 2월호 / 비신자도 응모 가능
- 문의: 2270-2509, 2515 / 12월19일(금)까지 접수

평화방송 라디오

PBC 라디오 가을개편

평화방송 라디오가 청취자들의 다양한 입맛을 만족시켜줄 알찬 프로그램으로 가을 개편을 맞이했습니다.

'열린세상 오늘' 110분으로 확대 (오전 7시10분~9시) 평화방송의 대표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을 110분으로 확대 편성해 뉴스메이커들의 뜨거운 토론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대한민국 최대 이슈의 궁금증을 가톨릭적 시각으로 시원하게 해소시켜 줍니다.

'가톨릭 세계' 신설 (오후 7시40분~8시) 풍성한 가톨릭 정보를 전해줄 본격 정보 프로그램 <가톨릭 세계>를 신설했습니다. 가톨릭교회 구석구석의 소식을 전해주는 '가톨릭 매일 뉴스'를 비롯해 바티칸과 직접 전화 연결하여 전하는 교황청 소식, 가톨릭 서적과 음반소식 등 다양한 정보로 가득합니다.

PBC 소년소녀합창단

2008년 하반기 신입단원 모집

PBC 소년소녀합창단이 새 단원을 모집합니다. 특히 이번에 모집하는 단원은 2010년 1월1일 바티칸에서 교황성하 집전의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미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 오디션: 12월13일(토) 오후 2시, 평화방송 지하1층 합창단실
- 자격조건: 초등학교 2학년 이상 중학교 1학년 이하, 수도권에 살고 있는 가톨릭신자 또는 예비신자
- 제출서류: 합창단 입단지원서(입단지원서 소정양식 사전에 작성해 제출, 증명사진 첨부), 최근 성적표
- 문의: 2270-2235 기획관리부, 019-9713-2365 지휘자

제62회 아퀴나스 합창단 정기연주회

- 예매 및 문의: 715-3793(무료 입장)



지난 70년대 중반부터 정기연주회와 자선음악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회음악과 합창음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퀴나스 합창단의 제62회 정기연주회가 11월12일(수) 오후 7시30분, 영산아트홀에서 있다. 박고영 신부의 지휘로 장엄미사(구노) 외 아름다운 성가 9곡을 연주한다. 소프라노 김민조, 테너 이영화, 베이스 김정석이 솔리스트로 노래하며, 아퀴나스 실내악단이 협연한다.

연극 '고곤의 선물'

- 입장권: 전석 3만 원 / 예매 및 문의: 889-3561
- 공연시간: 평일 20시 / 토 15시·19시



작가 피터쉐퍼의 최고의 작품 '고곤의 선물'이 11월18일(화)~23일(일), 남산 드라마센터에서 연극으로 공연한다. 그리스 신화의 인물들이 현실의 이야기와 뒤섞여 한 인간의 내

부를 해부해가는 추리극처럼 의문의 껏질을 하나씩 벗겨낸다. 배우 정동환, 서이숙 등이 출연한다.

전화예약 후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3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 가능).